

메시지 3

한 새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위해
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며
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

성경: 엡 4:13-16, 20-21, 24

I. 한 새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위해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— 엡 4:14-16, 24.

- A.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기까지,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— 엡 4:13-15.
- B. 우리는 모두 모든 일에서, 곧 크든 작든 각각의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— 엡 4:15.
 - 1. 우리는 아직 많은 일들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지 않았다.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.
 - 2.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,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것이다. 이것이 우주적인 한 새사람이다 — 엡 4:24.
 - 3.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우주적인 한 새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것이다 — 엡 4:24.
 - 4.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24절에서 새사람을 입는 것과 동일하다.
 - 5.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24절에 나오는 한 새사람을 가리키는데, 이 한 새사람은 충분히 성장하였다.
- C. 에베소서 4장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 새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.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한 새사람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.
 - 1.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새사람의 유기적인 창조를 보며,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기능과 관련해서 새사람의 온전하게 됨을 본다.
 - 2. 유기적으로 온전한 한 새사람이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— 엡 4:12-15.
 - a. 한 새사람은 오직 합당한 양육을 받는 것을 통해서만 기능과 관련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.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가장 깊은 관념들 중의 하나이다.
 - b. 우리는 보양하고 소중히 보살피는 것을 통해 한 새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— 엡 5:29.
 - c. 한 새사람은 합당한 양육을 받음으로 더 많이 자랄수록, 더욱더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.
 - 3. 단체적인 새사람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,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. 이럴 때 유기적으로 온전한 새사람이 기능적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— 엡 3:16-17상, 4:13, 24.

II. 한 새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— 엡 4:20-21.

- A.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 말한다.
1.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 아니라 본이시다.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에서 하나의 본, 곧 하나의 틀을 세우셨다 — 요 13:15, 뵤전 2:21.
 2.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지는 것이다 — 고전 1:30.
 3. 침례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를 본이신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다. 침례 받는 것은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지는 것이다 — 롬 6:3, 갈 3:27.
 4. 틀 안으로 넣어짐으로써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 — 엡 4:22, 24.
 5. 우리는 예수님의 생활의 틀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우는데, 그분의 생활의 틀은 바로 실재이다 — 엡 4:20-21.
 6.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지는 것이다. 다시 말하면,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세우신 본 안으로 들어가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— 엡 4:20.
- B. ‘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’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활의 실지 상태를 가리킨다. 예수님의 생활은 실재의 생활이었다 — 엡 4:21.
1. 에베소서 4장 17절과 21절에서 우리는 헛된 생각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의 대조를 본다.
 2. 실재는 빛의 빛남이다. 빛은 근원이고, 실재는 표현이다 — 요 8:12.
 - a. 주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의 빛남이시다 — 히 1:3, 요일 1:5.
 - b.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의 모든 방면에는 빛의 빛남이 있었기 때문에, 그분의 생활은 실재의 생활, 곧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활이었다. 그러한 실재의 생활은 하나님의 표현이었다 — 요 8:12, 14:6.
- C. 한 새사람의 삶은 정확히 예수님의 삶과 같아야 한다 — 엡 4:20.
1. 주 예수님께서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 오늘날 새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다 — 마 11:28-30, 요 6:57, 4:34, 5:17, 19, 30, 6:38, 17:4.
 2. 우리의 생활 표준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와 일치해야 한다 — 엡 4:20.
 - a.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고, 하나님 안에서, 하나님과 함께,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생활을 사셨다.
 - b.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실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. 다시 말하면, 의와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— 엡 4:24.
 3. 우리는 실재의 생활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— 엡 4:20-21, 요이 1, 요 4:23-24.
 4. 단체적인 인격인 한 새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실재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. 이러한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이다 — 엡 4:21.
 5.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에 따라 생활한다면, 우리는 단체적인 새사람의 생활을 가질 것이다.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에 부합하는 생활을 가질 것이다 — 엡 4:23.
- D. 교회생활은 단체적인 한 새사람의 매일의 행함이다. 다시 말하면, 본성과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행함이다. 한 새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새롭다 — 엡 4:17-32.
- E. 한 새사람은 하나님 자신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반드시 신성한 생활을 가져야 한다. 이러한 생활은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단체적인 생활일 것이다 — 엡 4:24.